

2015 9.20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제 1 독서 : 지 혜 서 3, 1-9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제 2 독서 : 로 마 서 8,31 L-39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복 음 : 루 카 9,23-26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연중대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미사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은 모처럼 대축일이 주일과 겹쳐진 덕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민 한인공동체들이 우리 조상들을

삶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선교사나 신부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민공동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웅기종기 모여서 시작한 공동체들입니다. 즉 조상들을 닮은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면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이리쉬 공동체, 포르투갈, 이탈리아공동체들이 미국에서도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동체처럼 온세계에 신부가 없어도 자기공동체를 구성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한국공동체 밖에 없습니다. 서로 같이 모여서 한분이신 하느님을 믿고자 신앙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30 여년전에 몇가정이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고 또 우리 한인들의 열정이지요. 지금 공동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런데 그 원인은 오늘 2 독서에서 나오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고난과 환난은 우리 공동체를 오히려 뚝뚝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듯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들은 이미 우리들에게 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누가 나의 신앙에서, 우리공동체에서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멀게하고 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예상 을 하시겠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질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을 것과 입을것과 머리를 둘 곳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의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지게하는 것은 바로 내 자존심, 내 기분과 내 느낌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 년전서 부터는 바로 이곳이 내가 살 곳으로구나! 내가 다른곳에 가며는 과연 이곳 만큼 살겠는가? 즉 제가 이곳을 떠나고자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것은 제 생각과 제 느낌과 저의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을 포기 하고 나니까, 공동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순명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아하! 이곳이 진정 내 집으로구나 하며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제가 잘 압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말을 마구 하고 다니는

지도 다 잘 압니다. 격언에 너의 친구란 네가 가장 힘들때에 너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때에서야 너에게 진정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가 있다고 하지요?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내가 뜻하지않게 상처를 주었을때에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상처를 주었을 때에 등을 돌리지않고,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내 진정한 친구라는 것 입니다. 나는 과연 내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고 있는지? 한 번 양심 성찰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리상으로도 성스러운 교회와 죄인들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요? 바로 우리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로가 상처를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성인들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성인들의 교회와 이 지상의 죄인들의 교회가 통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내 자존심과, 체면, 이기주의, 자만, 무지 입니다. 또 물질이 제일인양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강론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자신을 내려놓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즉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서 하늘 나라가 내 곁에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받은 좋은것과, 값진 것, 은혜를 입은 것은 늘 가슴에 지니고 사시고 상처 입은 것은 잊어 버리십시오, 저녁까지 가져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교자들의 자손 입니다. 그 후손 답게 신앙공동체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순교정신을 받들어 내가 죽고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3,1-9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맞갖은 이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26(125), 1-2 가. 2 다. 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서

<죽음도, 삶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 L-39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성

1 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